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공군

www.airforce.go.kr

2003. 4 / 제298호

2003. 4
제298호

Contents

제51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연설문 / 3

특집/변화와 개혁
- 환경 변화에 대한 자기 혁신 7계명 / 12
- 이제는 하트웨어(heartware)다! / 14
- 〈현장탐방〉 국방홍보원을 찾아서 / 20

특별기고
-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덕(德)의 사회화 / 16
- 경영진단의 이해(1) / 18

항공우주군
- 〈항공기 열전〉 EC-130H 전자전기/ 23
-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의 비전(1) / 24
- 우주상식(5) : 우주기상(2) / 26
- 초음속 돌파의 숨은 주인공 : T-50 통합시험단 / 28

한미동맹
- '한국의 美'에 푹 빠진 미 공군장병들 / 30

이달의 인물
-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자 : 홍승화 소위 / 34

생활속의 지혜
- 건강 365일/봄철의 나른함을 이기자! / 36
- 기상전망대/꽃이 피는 아름다운 4월에 / 38

문화나들이
- 풍경의 발견/부석사와 소수서원 / 39
- GAME ALERT/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 42
- 문화마당/물기 가득 머금은 그녀의 '정원…' / 44
- 음악의 날개 위에/공연장 관람예절 / 46
- 기지극장/데어데블 / 47
- 책으로 읽는 세상/편지를 쓰다 / 48
- 마음으로 읽는 글/'인생역전' 속에 숨은 진실 / 50

공보 25시
- 보도의 핵심, 타이밍! / 52

알고 계세요 / 32　우리 동아리 최고! / 33　장병기고 / 54　장병제언 / 56　알립니다 / 58
다른 그림 찾기 / 59　편집후기/독자마당 / 60　항공계 소식/이달의 호국인물 / 61

발행일자/2003년 4월 2일(통권 제298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233, 042-552-6233, 편집 · 디자인 · 인쇄/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간첩 신고/대공 상담은 국군 기무부대로… ☎ 080-777-1113

제51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연설문

친애하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사관생도와 공군장병, 그리고 학부모와 내빈 여러분!

공사 제51기 여러분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장 박성국 장군을 비롯한 교수진과 훈육관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의 강도 높은 교육과정은 軍에서도 정평이 나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졸업생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열 일곱명의 여성 졸업생, 그리고 태국에서 온 '지티판(Jittiphan)' 생도의 남다른 성취에 각별한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광스런 대한민국 공군장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성무대의 둥지를 떠나 저 높은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비상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도전은 우리 나라와 우리 공군의 창창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믿음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울러 '보라매의 산실'인 공군사관학교는 오늘 제51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공군사관학교가 공군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관생도와 공군장병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습니다. 이라크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북한 핵문제도 심각한 현안입니다.

우리는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과 뜻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입니다. 대결과 긴장으로 얼어붙은 땅에서는 희망과 번영을 꽃피울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軍은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세계 안보정세의 어떠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는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軍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 미국·일본과의 협조, 그리고 중국·러시아·EU를 포함한 대화와 협력의 틀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써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사관생도와 공군장병 여러분!

현대의 안보상황에서 공군력은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입니다. 우리 공군 역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과학군·기술군을 육성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전력을 지속적으로 첨단화하여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첨단의 정보역량과 전략임무 수행능력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전략형 공군력을 건설하고, 나아가 '항공우주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공군력과 과학기술력,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은 서로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군은 특히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만큼,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군은 産·學·硏 협조체제하에서 국산 항공기의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KT-1 훈련기가 지금 수출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비행에 성공한 T-50 초음속 항공기도 머지않아 양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가면,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예 국산전투기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이처럼 원대한 공군의 비전을 실현해갈 주인공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날, 여러분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항공우주군'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사 51기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빨간 마후라'의 신화를 창조해 냈습니다. 필승 공군의 명예를 지키며 조국의 영공을 사수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선배들이 쌓아온 필승 공군의 전통을 더욱더 찬란하게 이어주기 바랍니다. 영공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랍니다.

21세기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와 우리 국민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공사 51기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공군개혁 성과 제고노력 당부

공군발전을 위한 공군개혁이 전 장병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중단 없이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공군의 전 간부들이 「공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명확한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과제들을 내실있게 실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군개혁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전 공군장병들이 자발적으로 공군개혁에 동참토록 하여 개혁 성과를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군본부 주간참모회의에서

R.O.K. Air Force

1 2
3

1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제51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생도들을 축하하고 있다.

2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공군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전시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3 도열해 있는 제51기 사관생도들. 맨 앞에는 대통령상 수상자 홍승화 소위

4
5
6

4 공사 5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생도들을 축하하고 있는 김대욱 참모총장
5 태국 공군 장성을 접견하고 있는 김대욱 참모총장
6 공군본부 '환경변화에 대한 자기 혁신 방안' 강연회 실시

7
8 9

7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봄맞이 헬기 점검비행 실시
8 제20전투비행단 5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9 교육사령부, 제32기 공군기술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 거행, 쌍둥이 형제 3쌍 함께 임관 '눈길'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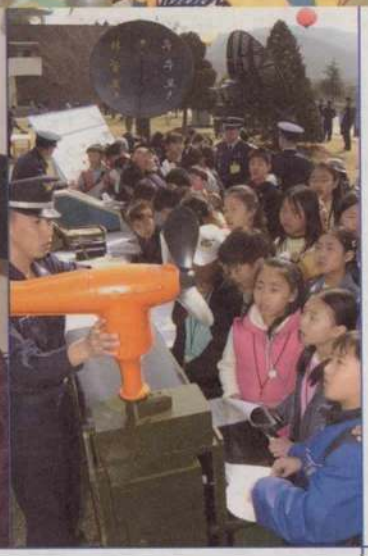
10 제18전투비행단,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훈련 실시
11 제5전술공수비행단, C-130수송기 이용 최초 장갑차 공수 임무 전개
12 제11전투비행단, 정문대테러 훈련 실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1
2
3 4

1 교육사령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
2 美해병대 장병과 함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동봉사활동을 실시한 제16전투비행단
3 제17전투비행단, 지역주민들 대상 무료진료 봉사활동 실시
4 제73기상전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 초청,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환경 변화에 대한 자기 혁신 7계명

편 집 실

지난 2월, 공군본부에서 강연을 실시한 「외다리 보험왕」 조용모(해피라이프 개발원) 원장은 성공한 보험인이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인의 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또 설득해야 하는 힘든 보험 영업에서 숱한 기록을 세웠으며 영업 및 조직관리 능력에 있어 보험업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서 있다.

조용모 원장이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하여 닥쳐온 환경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한 데에 있다. 한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변화는 무엇일까? 결혼, 가족의 죽음, 이직 등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겠지만 신체의 손실이라는 환경의 변화만큼 크고도 회복이 불가능한 변화도 없을 것이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를 잃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변화조차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의 생활 자세 앞에서는 별다른 장애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바다로 간 나무꾼」이라는 책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 즉 모든 고정관념이나 상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행동하는 인생」과 「창조하는 삶」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공룡의 종말을 보라. 공룡이 힘이 없어서 멸종되었는가? 아니다.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도태된 것이다."

그렇다. 공룡뿐 아니라 수많은 종족들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종해 갔다. 한때 브라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도도새는 포루투칼인의 이주라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멸종해 버렸고, 도도새가 씨를 퍼트려 주어 번식하던 카바리아 나무도 따라서 멸종해 버리고 말았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자신들의 무대로 하여 살아가던 인디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고작해야 소수의 인디언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거나, 백인세계에 편입되어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인간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멸종되어 버리고 만다.

"과거에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한다고 했지만 현대에는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변한다."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생각의 변화를 우리들은 매년 연초마다 경험하고 있

다.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다짐을 하고는 작심삼일이라 며칠 되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는 등 생각의 변화만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더 금연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을 계속해 나갈 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하려거든 자신을 확인하고 작은 것부터 시도하라. 시정할 것은 고치고, 없앨 것은 철거하고, 필요한 것은 키워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개의 문 중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잠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열려있는 문으로 빠져나가려고 기를 쓰고 몰린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서서 다른 쪽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이 양쪽 문을 모두 이용해 편히 나가기 시작한다. 행동의 변화는 커다란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동하는 인생」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조용모 원장은 그 방법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 혁신 7계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직장인은 죽었다. 고용당한다는 개념을 죽여라 - 주인정신
2. 자기만의 장점을 살려라 - 복지부동 타파, 일하는 자세 개선
3. 인생은 전략이 필요하다. 3년간의 성공 지도를 만들어라 - 목적의식
4. 한달 중 나의 날을 만들어라 - 자기 개발
5. 하루 중 10%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 - 준비하는 자세
6. 잃어버린 꿈에 불을 붙여라 - 열정과 성실
7.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 차별화 전략

우리는 흔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위기라는 환경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 그 변화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인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위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회」로 만들 것인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다. 주인정신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타성에 젖어 일해오던 방식들을 점검하고, 열정과 성실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며 자기 개발과 일하는 방식의 개발을 시도하면,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서나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하트웨어(heartware)다!

제20전투비행단 대위 **윤 경 식**

과거 공군은 Hardware(비행기, 장비, 통신의 인프라 등 물리적 요소)적인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국력의 발달과 더불어 현재 많은 Hardware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Software의 발전도 병행되고 있다.

이제, 발전된 Hardware와 Software를 적용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성립해야 한다. 각종 상황과 생활에서 개인들이 반응하는 양식인 Heartware, 이는 모든 공군 자산의 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술적용에 대한 도전성과 다양성 추구

현대와 미래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기술의 진보이며,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도전이 요구되며, 이러한 도전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KF-16과 F-15K의 도입은 공군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기술 이용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Hardware의 질적 우위를 전장에서 우위로 승화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향후 더 기술적 진보를 이룬 항공기가 도입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크게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종식은 민족주의와 종교주의, 실리주의와 연계되어 다양성과 각종 분쟁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향후 수행되어질 작전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하나의 정답을 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쟁과 각종 분쟁, 테러 등 조종사들은 많은 다양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 가지 해법이 아닌, 다양한 적용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원칙과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결과는 '원칙과 개념에 위배되지 않는가?' 만을 검토한 상태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의 세계

자연과학 및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인류는 모든 현상과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자연적·사회적 현상에는 과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혹은 한계가 있는 많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작전분야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상예보, 연료사용계획, 비행사고 등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 안 하고 100% 성과만을 강요한다면, 실제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될 것이다.

그러므로 쌍방향 Communication의 성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군은 현재 꾸준한 노력으로 C4I의 인프라구축에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4I를 단순히 명령체제의 신속한 이용에만 활용한다면 그 체계를 50%만 사용하는 것과 같다. 하부구조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전파할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쌍방향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도전의식과 자율성의 증대

기술의 진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공군작전에 있어서 기술의 진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그와 함께 기술의 진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 전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또 다른 큰 도전이며, 이에 따라 많은 실패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훈련에서의 도전과 실패는 실전에서의 성공과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도전과 실패의 인정은 결국 소부대의 자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자율성이 증가된 부대만이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로운 문화가 진정한 Network 내의 가치 있는 정보교환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다양성과 불확실성의 인정

향후 공군은 BDA(Bomb Damage Accessment) 위주의 성과분석에서 EBO(Effect Based Operation)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EFFECT는 물리적 성과만으로는 설명하거나 정량화하기 힘든 부분이며, 결국 임무의 질적 성과와 그에 따른 효과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버지니아 포스트렐은 미래의 가장 큰 적은 미래에도 변화하지 않으려는 '역동성의 결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공군 구성원이 갖고 있는 Heartware가 역동적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적을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Heartware의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공군의 Hardware와 Software 발전의 초석이다.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덕(德)의 사회화

서울시립대 교수 이 성 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에서 나온 말로 소위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말한다.) 현상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른바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일부 시설들의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제때 건설되지 못하고 계획자체가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미 있는 시설에 대한 이전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사성 핵폐기물 관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 문제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8년째 신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묘공원 건립도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이양되면서 지역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발전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소위 지역이기주의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적인 요인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건립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님비 현상의 핵심인 것이다.

시장경제 사회에서의 지방화 시대에 어쩌면 님비 현상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님비 현상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소위 이러한 시설의 건립으로 인하여 개인은 재산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지방정부는 세가 줄어들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 지역이 반대로 재산상의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님비현상

그러나 이러한 님비 현상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두고 본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비단 쓰레기 소각장이나 정신병원 및 장묘공원 건립 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핵폐기물 관리시설이나 군 시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군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쉽사리 옮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옮기고자 하여도 다른 지역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소음 등의 이유로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있는데,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님비 현상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위와 같이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군사시설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한 쪽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과제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시설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충분한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이 없도록 끊임없이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한다. 각 지방 정부는 예산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산이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의 반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허덕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지역에 필요 시설을 건립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역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일본의 경우는 특정지역에 필요시설을 건립하게 될 경우 그 지역에 편의시설은 물론 여가시설까지 같이 건립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까지 벌인다고 한다. 이러한 외국 사례도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설이 있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살 수 있다고 본다.

특정 지역이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줄여주려는 국가적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손해 보는 것은 괜찮고 나는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는 묘한 이중성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나는 하기 싫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중성에서 말이다.

전체 사회를 생각하는 덕의 사회화가 아쉽기만 하다.

경영진단의 이해(1)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분석평가처

바둑 구경을 하다가 한마디 훈수를 두고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 먼 친척 제사에 갔다가 "여기에는 배 놓고 저기에는 감 놓고" 등 제사상 차리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다가는 다시는 그 제사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정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남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며, 그것이 간섭이 아닌 조언의 경우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존경받는 촌로에게 자신의 대소사를 일일이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 것처럼 자격있는 조언가에게는 전적으로 의지했던 민족이기도 하다. 존경받는 촌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경영진단(management consulting)이며, 이는 남의 일에 훈수를 두는 일이다.

왜 경영진단을 하는가?

인체에 있어 병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듯이 유기체인 조직도 그 조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조직은 결국 허물어지게 된다.

특히 스스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외부의 시각과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경영진단이 바로 이 외부의 시각과 도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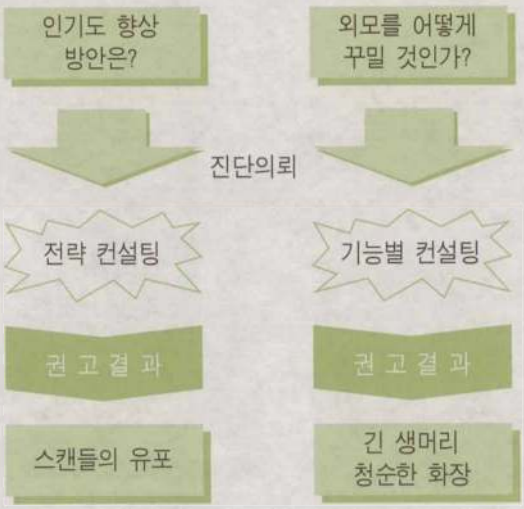
그러면 이러한 경영진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자

경영진단의 구분

경영진단은 진단 내용에 따라 전략진단(strategy consulting)과 기능별 진단(functional consult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인 탤런트의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탤런트로서의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녀는 항상 고민하고,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다. "인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라고 자신이 소속된 기획사 매니저에게 물었다면 그 매니저는 그녀의 탤런트로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한 후 미래의 여자 탤런트 시장 환경 변화 등을 예측하여 유명인사와 스캔들을 의도적으로 가공, 유포하는 방법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일종의 전략 컨설팅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얼굴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그녀의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미용사, 코디네이터 등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식의 권고를 했을 것이다. 이것이 기능별 진단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컨설팅과 업무 개선 수준의 기능별 컨설팅이 각각 또는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 신인 탤런트의 경영진단

이제 우리 공군의 경영진단에 대해 살펴보자.

공군 '경영진단'의 목적은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군 운영 도모이다. 우리 공군은 연간 수조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금액은 어느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군이 큰 소비집단임을 알 수 있다. 비용과 투자의 책임이 각 사업부문별 또는 부서별에 귀속되어 책임과 성과측정이 명확한 일반기업과는 달리 국가기관으로써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순수한 소비집단인 군에 있어서는 효율적 사용에 대한 평가나 책임 한계 설정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 공군의 각 부대 또는 부서의 경우에도 연간 가용자원을 확정하는 예산편성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으로 인해 민간 기업보다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은 특성상 민간에 비해 경직된 조직이다. 개별의 창의적 사고, 업무 능력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규정, 교범, 절차 등)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어진다. 각 부대의 지휘관도 이러한 이미 정해진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정해진 틀이 견고한 조직에 오래 몸담고 있을 경우 그 조직의 구성원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 힘들게 된다.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상급부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경영진단의 공군 내 존재 필요성이 되는 것이다.

감사/검열과 경영진단의 비교

한편 실제 경영진단을 실시하며 부대를 방문할 경우 대부분의 업무담당자들이 경영진단을 감사나 검열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행위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 혹은 검열이라면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과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경영진단의 가장 큰 특징이고, 대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경영진단을 감사, 검열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경영진단	감 사	검 열
목 적	개선권고	위반사항 시정	업무수행능력
기 준	합리성	합법성	능력 유무
방 법	상 담	조 사	실 시
대 상	전분야	회계행위	작전태세/지휘관리
연간대상	1~2개 부대	15~20개 부대	15~20개 부대
기 간	15~25주	1~2주	1주
주안점	원인규명	결과	수행정도
대 안	문제의 해결	재발방지	능력제고

(다음호에 계속)

그곳이 변하고 있다.

국방홍보원을 찾아서

평일 오후 12시 25분 라디오에서 배한성·송도순 커플의 편안한 입담을 들을 수 있다. 오후 1시에는 'FM 가요수색대'가,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은 최할리의 '세계음악기행'이, 6시 30분에는 영어 프로그램 '써니 김의 팝 잉글리쉬'가 펼쳐진다. 일요일은 아침 6시 '음악이 흐르는 곳에'로 시작 개그맨 서경석의 '주간 연예저널', '전찬희의 가요산책' 이익선의 '시네마 천국', 그리고 '김이연의 문화가 산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바로 FM 주파수 101.1MHz(서울 및 중부지역), '국군방송'이다.

위의 제목만을 펼쳐놓았을 때 이를 국군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변화하고 있는 국방홍보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방홍보원은 현재 '국방일보'를 일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하루 16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월간 '국방저널'과 연 1회 국방화보를 발간하고 국군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얼마 전에 나와 호평을 받았던 '군과 언론'도 국방홍보원에서 만든 작품이다. 또 최근 MBC와 공동 제작한 드라마 '막상막하'를 선보이기도 했다.

군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번호 공군지에서는 기관 개혁을 통하여 군 안팎에서 크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국방홍보원을 찾아보았다. 지난 '01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변해야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정하여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기관 쇄신을 통해 '국민과 군, 군과 군간의 가교역할'이라는 기본임무를 한 차원 높이고 있는 김준범 원장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방홍보원의 다양한 모습과 비전을 살펴본다.

국방홍보원은 어떤 기관인가?

국방홍보원은 지난 '50년 국방부 촬영대(국군영화) 발족을 시작으로 국군방송('54년), 국방일보('64년)가 창간되었습니다. '81년 국군홍보관리소에서 2000년 1월에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되어 그 해 8월 현재의 명칭인 국방홍보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이 인사권

등의 운영권을 자율적으로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국방부 내의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이 바로 국방홍보원입니다.

국방홍보원은 현재 신문부, 방송부, 영화부, 관리부 4개 부서 200여 명이 국방일보, 국군방송, 국군영화를 제작하여 군을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국방전문 종합 미디어 기관입니다.

국방홍보원 현관에 걸려 있는 '변해야 산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이다. 취임한 이후 가장 중점에 두었던 부분은?

국방홍보원은 공무원 조직이고, 국방부 산하의 군조직이지만 업무의 기능이나 역할로 보면 군내 언론기관입니다. 즉, 새롭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마인드, 열린 자세,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 일하는 스타일 등. 그래서 저는 '변해야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이를 전 국방홍보원 식구들이 인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즉 분야별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국방홍보원이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의 속도를 늦춘다면 이제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일보, 국군방송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국방일보부터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지면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국방일보에 현실적으로 경쟁할 경쟁자가 없다보니 전문지로서의 역할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독자에 대한 서비스 결여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국방일보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방일보를 '독자 제일의 전문지'로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독자중심의 신문', '정보가 있는 신문', '쉽고 재미있는 신문' 등 5대 편집방향을 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방일보가 외면받는 신문에서 환영받는 신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군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받는 방송, 즐겨듣는 방송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시작!

특히 국군방송의 경우는 작년 4월 1일부터 아침방송 2시간을 생방송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봄개편을 맞이하여 오후 시간대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4월부터는 전쟁기념관에서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금요 미니콘서트를 주간 프로그램으로 상설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현재 국방홍보원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과분한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기초를 닦아 놓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초 위에 보기 좋게, 그리고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위성TV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매체를 확보·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창단팀이 현재 구성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문과 방송을 양축으로 하는 한차원 높은 국방홍보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군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저는 공군에 대해서 관심과 애착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공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관련하여 참모총장님께 존경을 표하고,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군장병을 비롯한 공군지 독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군지뿐만 아니라 국방홍보원에서 만드는 신문, 방송, 영화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ONE-WAY COMMUNICATION이 아닌 TWO-WAY COMMUNICATION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 변화와 발전하는 국방홍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감·건의·칭찬 및 질책을 꼭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방홍보원장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변해야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래서일까? 공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방홍보원이 더욱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EC-130H 전자전기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미 공군은 1960년대 중반에 전투공격기의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전장 공중지휘통제(ABCCC : airborne battle command & control center)기로서 C-130 항공기를 개조한 C-130-Ⅱ를 개발했다.

이후 1975년 전장 공중지휘통제를 위한 EC-130E Volant solo Ⅰ과 심리전 능력을 갖춘 EC-130E Volant solo Ⅱ로 대체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통신교란 능력을 갖춘 EC-130H Compass Call기를 1982년 4월부터 배치 운용하고 있다.

EC-130은 조종사 4명, 1명의 전자전임무지휘관, 암호 해독/임무 승무원 감독자 1명, Rivet Fire 전자전 방해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1명의 오퍼레이터, 1명의 특수신호 분석자, 4명의 다국어 통역자(중국어, 러시아어 등), 항공정비 기술자 등 총 13명의 승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EC-130기는 1970년 캄보디아 내전, 1983년 그라나다 침공시 활약하였으며, 1991년 걸프전에 참전한 Compass call은 공격개시 5시간 전부터 EF-111과 함께 통신교란을 실시하여 이라크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마비시켜 다국적군의 성공적인 작전수행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EC-130H는 2007년까지 조종석, 레이더, 항법시스템을 성능 개량시킬 목적으로 항공전자 현대화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다.

미 공군은 향후 4년에 걸쳐 10세트 이상의 SPEAR 포드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액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이 항공기가 정비과정을 밟고 있는 기간 동안 포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하드웨어가 공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항공기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적외선 방해장비를 탑재시키는 것이다. 예산상의 문제로 미사일 경보 시스템 채프/플레어 발사기의 설치 대수가 제약받을 수 있다. 고가의 획득비용이 드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의 도입도 아마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핵심은 가능한 한 즉시 다양한 자체보호장비를 갖추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이유는 아프간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현재 전 세계인의 관심사인 이라크 전쟁에도 Compass Call기는 위험한 지역에 투입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의 비전(1)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최근 전쟁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군사작전에서 항공우주체계가 전장의 주도전력으로서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정찰위성을 이용한 적 군사시설 및 부대 이동상황에 대한 정밀 영상 및 표적정보 지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정밀 기동 지원과 고성능의 정밀 무기를 이용한 정확한 표적공격, 통신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전장 지휘통제 수단 제공 등은 인류가 이전의 전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전쟁양상을 보여주었으며, 현대전에서 우주전력의 역할 및 중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우주전력은 고성능 전투/폭격기 및 정밀유도폭탄, 순항미사일 등 현대적 무기체계의 완벽한 성능 발휘를 보장하였고, 무기체계 상호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상승효과를 가져와 전쟁 목표를 조기에 달성 가능토록 했다.

이렇듯 군사작전에서 우주전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자국의 우주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군사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주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각종 군사위성뿐만 아니라 우주배치 레이더, 우주전투기, 대륙간 탄도탄 및 인공위성 요격용 우주배치 레이저(SBL : Space Based Laser), 상대국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대위성 요격용 지상배치 레이저(GBL : Ground Based Laser) 등 우주공간을 통해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등 우주의 군사적 활용차원을 넘어서 우주의 전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도 이미 다수의 군사 위성을 보유하며 상대국에 대한 감시 및 정찰,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발사 로켓을 이용하여 유인 우주왕복선 발사를 계획하는 등 미래의 우주전력 기반 구축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선진국의 우주개발 및 우주의 군사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과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항공력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었고 중동전, 포클랜드전, 걸프전 등에서 항공전력이 전장의 주 전력으로 등장하였듯이, 이제 우주전력은 전쟁 수행의 보조수단이 아닌 핵심전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적국의 우주력 사용을 제한하고 자국 우주전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도 예견되고 있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

우주개발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진행되어

여러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그 우주개발 기술이 주변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수준의 우주개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가이익과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군사위성을 발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주감시 및 식별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시 우주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주전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군사적 용도의 인공위성이다. 정찰 및 정보수집, 표적 정보획득 및 정밀공격지원, 기상, 통신, 항법 지원 등 우주를 통한 군사작전지원의 대부분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반영하듯 2001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1,000여 기의 인공위성 중 약 1/3인 330여 기가 군사위성이며, 통신, 기상, 항법 등 상업위성의 군사적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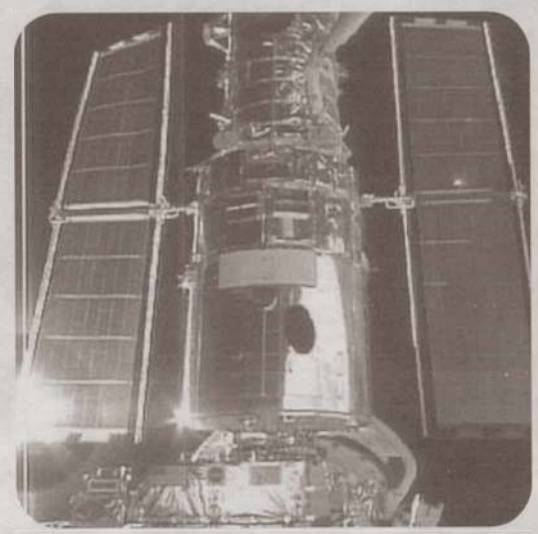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성이 다목적화, 소형화, 장수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찰위성의 경우 고해상도화, 주/야간 전천후화, Multi-Sensor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정보수집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정찰 및 감시위성

정찰 및 감시위성에는 군사시설 및 부대상황 등에 대한 광학, 적외선, 레이더 영상을 제공하는 사진정찰 위성과 레이더, 통신, 전자전 장비 등의 전자파를 탐지, 해석하는 신호/전자정보위성이 있으며, 이들은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영상 제공, 레이더, 통신 장비, 전자전장비의 기종 및 운용모드 파악, 근거리 및 원거리 통신도청, 폭격피해평가 등을 위해 활용된다.

걸프전 당시 미국은 쿠웨이트와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다중 스펙트럼 영상(MSI : Multi Spectral Imagery) 위성체계를 이용하여 책임구역에 대한 최신 지도를 정확하게 그려냈으며, 이라크군의 방공망 및 지휘통제소 등 주요 군사시설의 위치와 이동상황을 추적하였다. 또한 공격작전을 준비하거나 연습할 때에도 MSI 위성을 이용하였다.

MSI는 보통의 관찰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착할 수 있으므로 이라크 군의 작전을 사전에 간파하여 미군의 작전계획을 세우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전파를 탐지하는 신호/전자정보위성은 원거리 및 근거리 통신을 도청하고 각종 방공 레이더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이라크군의 작전을 감지할 수 있게 하였다.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5)

우주기상(2)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담당

국내 · 외 우주기상 예보체계 현황

우리 나라의 우주기상 예보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우주기상 예보능력은 국제 우주환경 정보망 미가입, 연구 기관별 개별적인 연구 등 조직적인 연구체계와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보유장비의 노후화와 필수장비의 미보유로 부분적 관측과 예보만 수행하는 초보상태이며, 국내 천문대 태양연구팀을 비롯하여 최근 몇 개의 학교에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우주기상 연구 및 예보 수준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다른 나라의 우주기상 예보체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수 행 업 무
미 국	○ 우주환경센터(SEC : Space Environment Center)를 설립하여 대규모 연구와 전 세계 우주환경 자료의 종합 · 분배 · 서비스 역할 수행
호 주	○ 세계자료센터(WDC : World Data Center)를 통하여 태양, 지자기, 기타 우주환경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배하고 국제 우주환경 정보망을 형성하여 관측 자료를 공유
일 본	○ ISES 회장국이며, 히라이소 태양-지구 연구센터(Hiraiso Solar Terrestrial Research Center)를 중심으로 국민과 사용자에게 우주 환경예보 서비스 시행
기 타	○ 중국, 체코, 헝가리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도 ISES 회원국으로 우주 환경에 대한 연구와 예보 서비스 수행 ○ 북한도 태양활동에 의한 지자기 활동변화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뉴스를 통해 예보

* 국제 우주환경국(ISES : International Space Environment Service)

2015년까지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센서의 탑재가 예상되는 위성을 포함하여 총 20기의 위성 발사가 예정되는 등, 공군의 우주자산 확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 우주환경 지역관측소 현황

한편 우주관측자료의 교환은 각 나라들이 상호교환을 통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의 수립 및 국제 우주환경국(ISES)을 통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NASA와 유럽 우주항공국은 공동으로 쏘아 올린 SOHO 태양관측 위성을 통해 태양 플레어 관측 등 태양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주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전 세계적 정보망을 구성하고 있다.

미공군 우주기상 예보체계

55우주기상대대는 우주기상의 분석, 예보 업무를 수행하는 미우주사령부의 우주기상 참모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5우주기상대대는 전 세계에 위치된 6개의 태양관측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관측소에서는 우주전이나 지상에 기반을 둔 통신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층의 소란, 그들의 방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 플레어, 우주잔해물, 위성의 정확한 위치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밀도의 변화를 포함한 요소들을 관측한다.

군사적 적용

위성과 우주 비행체의 고장은 곧바로 우주작전의 방해요소로 연결된다. 지상감시 또는 목표지점을 정찰하는 정찰 및 첩보위성뿐 아니라 항법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GPS 위성·작전부대·항공기·전함·사령부·지휘부를 1개의 통신체계로 연결시켜 주는 방대한 통신망을 위한 통신위성, 적의 미사일이 발사시 즉각적인 적 미사일의 비행 각도·방향·고도·속도 등 발사정보를 감지하는 조기경보 위성, 실시간의 정밀한 기상관측을 위한 기상위성 등이 송신하는 정보가 제시간에 전달되지 않거나 정보자체를 받아 볼 수 없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위성을 포함한 우주 비행체는 한낱 우주잔해물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우주기상에 대한 정확한 예보는 우주기상에 의한 영향 예상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중요한 군사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공·지·해상 전력에 대한 우주로부터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시키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라는 2015년까지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센서의 탑재가 예상되는 위성을 포함하여 총 20기의 위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 외, 광학 및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 등 공군의 우주자산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군 우주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이러한 독자적 우주기상 지원체계는 항공우주군 도래 전에 선행적으로 필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초음속 돌파의 숨은 주인공 : T-50 통합시험단

제52시험평가전대 시험비행지원실 소령 **권 진 호**

T-50 통합시험단(CTF : Combined Test Force)은 최근 국내 최초 개발 초음속 항공기인 한국형 고등 훈련 시제 1호기와 시제 2호기의 최초 및 초음속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러나 T-50 최초 및 초음속 비행을 밤낮 없이 준비하여 성공시킨 조직이 공군의 제52시험평가전대의 조종사, 기술사, 계측·정비 지원 요원 등 비행시험 관련 요원과 한국항공 우주산업 주식회사(KAI : Korea Aerospace Industry, 이하 한국 항공)의 엔지니어를 통합하여 편성되어 있는 T-50 통합시험단(CTF)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T-50 항공기 체계 개발 시험시 통합시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체계 개발(System Development)은 군이 사용할 무기체계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 공정(Manufacturing)을 업체가 개발하는 것으로, 시험과 평가는 사용자인 소요 군이 주관 또는 주도하여 개발자인 업체와 함께 시험하고 획득한 자료를 통해 개발의 성공과 무기체계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체계 개발은 개발이 종료된 후 '군이 사용할 것'이라는 대전제하에 개발이 수행되기 때문에, 무기체계 개발 시험은 사용자이며 사업 관리자인 군이 주관하여 개발자인 업체와 함께 개발시험(DT : Development Test)을 수행하는 통합시험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용자인 군과 개발자인 업체 간 개발 시험을 위한 수행능력이 상호 제한됨에 따라, 상호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시험 완수를 하기 위함이다. 개발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는 시험 항공기, 시험비행조종사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요소를 군이 혹은 개발자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제한으로 인하여 통합 없이 단독으로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T-50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군과 업체의 시험 수행능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시험 능력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하여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위험도를 최소화하며, 상호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통합시험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T-50 체계 개발 시험이 단순한 비행기를 개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체계를 개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기 목적인 T-50과 경공격기 목적인 A-50은 Radar 운용 능력, 항공 전자 계통과 무장 시스템의 연동 및 무장 발사 능력, 잠재적인

전자전 능력과 전술 적용 능력을 모두 갖추도록 설계되었고, 그것에 대한 비행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나, 민간 시험비행 조종사가 항공전자, 무장, 전자전 등의 무기체계를 시험할 수는 없다. 또한, 항공 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비행 시험 지원 요소인 Radar 시험을 위한 표적 항공기, 공대공 무장발사를 위한 표적,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와의 상호 기동을 통한 전술 적용, 공대지 무장투하 및 발사를 위한 사격장, 폭발물 취급 전문요원 등은 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 이유는 비행 시험 수행의 효율성 제고이다. 항공기 또한 다른 공산품과 같이 인간이 창조한 물건이기에 여기에는 분명히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된다. 고등 훈련기(T-50/A-50)가 개발 시작부터 현재까지 생산자로서의 한국항공과 사용자로서 정부를 대표한 공군이 동시 참여한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은 바로 한국형 고등 훈련기 사업의 성공, 실패 여부가 국가 안보와 군의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성공과 실패 및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흥망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공기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이러한 동시 참여는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특히 항공기 사업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는 개발 시험(DT) 분야에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어 군과 업체의 통합시험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실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T-50 체계 개발에 따른 비행 및 종합군수지원(ILS : Integrated Logistic Support) 분야의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통합시험단은 비행시험시작 1년여 전인 2001년 초반부터 조직 구성, 구성 시기, 임무 등을 검토하고, 제52시험평가전대와 한국 항공간 통합된 조직 구성을 완료하였다. 현재는 고등 훈련기 시험수행의 단일 창구로 시험 준비 및 진행을 주도해 나가면서 계획된 통합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결과는 한국 항공 및 제52시험평가전대에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즉, 통합시험단에서는 시험(비행 또는 종합군수지원 분야)과 시험에 따른 획득자료 분석만 수행할 뿐이고 개발시험(DT)/운용시험(OT : Operational Test)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제공된 자료에 따라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통합시험단이 편제상 조직이 아니라 시험 수행을 위한 기능상 조직이므로 책임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요원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나, 사업을 이끌어 가는 관점이 다르고, 성향이 다소 상이한 군과 업체가 통합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상호 불협화음 가운데에서도 성공적인 시험 완수에 대한 동일한 목표는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충분한 결집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T-50 시제 1호기, 2호기의 최초 비행 및 초음속 비행!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초로서의 의미만 주어질 뿐이다. T-50 통합시험단에서는 T-50 체계 개발 사업 종료까지 수행해야 할 1,000여 회의 비행 및 종합군수지원(ILS) 분야 시험과 평가라는 커다란 산을 앞에 두고 있다. T-50개발시험 진행에 따라, 통합시험단 요원들은 충분히 그 산을 넘을 수 있을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준비될 것이다.

'한국의 美'에 푹 빠진 미 공군장병들

작전사령부 중위 **강 경 희**

지난 2월 28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오산기지에 근무하는 미 7공군 장병과 가족 40명이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

이들은 경복궁과 민속박물관을 견학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둘러보았으며 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공예품 제작 수업에 참가, 멋스러운 한지를 이용한 '오색한지 상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색한지 상자가 마르는 시간을 이용하여 야외 마당에서 제기차기와 줄다리기, 널뛰기 등 전통놀이에 이어, 점심에는 어색하나마 젓가락을 사용하여 불고기와 산나물 등 한국 전통 음식을 먹는 등 완전히 '한국의 美'에 흠뻑 젖은 채로 하루를 보냈다.

경복궁·민속박물관 견학에 이어 전통놀이 체험, 점심엔 불고기와 산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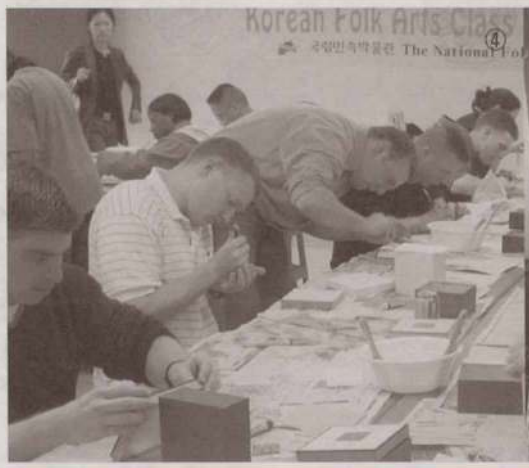
한국에 온 지 4개월이 된 미 7공군 앤드류 레오나드(Andrew Leonhard)는 "한지와 풀만을 사용하여 상자를 만드는 것은 어려웠지만, 땀흘려 만든 만큼 고향에 있는 딸에게 선물로 주면 너무 좋아할 것이다"며, "한국의 전통 문화가 매우 다양하고 신비해서 하루 만에 다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금번 행사는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미 장병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함으로

①

써 양국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특히 재료비를 비롯한 모든 행사비용을 본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마감 하루 전에 신청이 종료되는 등 미 공군 장병들은 한국문화 체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① 완성된 한지상자를 들고 기념 촬영!
② 완성된 공예품을 들고 좋아하는 미 공군 장병 모습
③ 제기차기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④ 미 공군 장병들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전통공예품 제작 수업에 참가하여 '오색한지상자'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⑤ "한국 음식은 맛있어!"
미 공군 장병들이 불고기·산나물 등 한국 전통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



코인(coin)의 역사와 배경

연합사와 작전사령부에 근무하였거나 훈련에 참가한 장병이라면 누구나 미군내 각 급부대 지휘관이나 부서장이 부대(서)의 특징을 상징화한 도안을 원형 동판(크기는 대략 4~5cm, 우리는 '코인'이라고 칭하고 있음)에 새긴 것을 기념품으로 전달하는 것을 한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들이 이 코인을 나누어주는 전통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한 비행대대에 소속되어 있는 중위 한 명이 대대 상징을 새긴 메달을 주문하여, 전 대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작은 가죽가방에 넣어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녔다.

얼마 후, 이 조종사의 항공기가 적 후방지역에 불시착하게 되었으며 독일군 순찰병에 의해 체포되었다. 독일군은 그의 목에 걸린 작은 가죽가방을 제외한 모든 신분 증명서를 압수하였는데, 그는 극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잡아 민간인 복장을 하고, 탈출에 성공하여 프랑스 전초기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미국인 조종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프랑스군은 그를 적 공작원으로 간주, 총살에 집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마침 그때, 그는 메달이 담긴 그의 가죽가방을 기억하여 메달을 총살 집행인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자 프랑스군은 메달에 새겨진 표지가 미국의 비행대대 표지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의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형 집행을 연기하였다.

그가 비행대대로 돌아온 후, 전 비행대대원이 항시 메달이나 코인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코인을 보여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자신의 코인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음료수를 사야 하며, 자신의 코인을 보여주었을 경우 요구한 사람이 음료수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전쟁이 종료되고 생존한 비행대대원이 살아 있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 후 미군 전체로 퍼져나가 이제는 미군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자료제공 : 작전사령부 중령 최준영〉

우리 동아리 최고!

11전비, 茶道 동아리 '茶人'을 찾아서

제11전투비행단 중위 **원 종 배**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군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군 장병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군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

공군 11전투비행단에는 특히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동아리들이 활동 중이다. 이중 가장 최근 결성되어 장병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색적인 동아리가 있는데, 바로 다도 동아리 '다인(茶人)'이다.

점심시간을 이용, 어렵게 '다인'의 모임 장소를 찾았을 때 손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도 다도의 일종이라며 반갑게 맞이해 준 열성 동아리 회원 강지민(부사후 177기, 25세) 하사를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득하고 있는 다도 동아리 '다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도'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하자면?

茶道란 차를 마시는 멋과 더불어 인간의 건전한 삶의 길을 걷자는 것을 뜻합니다. 차는 우리 인간들이 건전한 삶의 길을 걷는데 있어 가장 소중한 몸을 튼튼히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귀중한 기호음료일 뿐만 아니라, 차를 끓이고 마시며 대접하는데 있어서 들이는 정성과 예의범절, 그리고 청정하고 고요한 분위기 등에서 얻는 알뜰한 각성의 생활을 체득(體得)하게 됩니다.

동아리 모임은 주로 언제하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금요일의 정기 모임 이외에도 점심시간 또는 훈련이 없는 날에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동아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도'와 '다인'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도 전문가를 초청 직접 실습을 가질 예정이며, 11비 장병들뿐만 아니라 기지주둔 미군들도 모임에 초청,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딱딱해지기 쉬운 군 생활 중에서 갖는 동아리 모임은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얻는 차 한잔의 여유는 회원들 간에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지켜야 할 예절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21세기 신 병영문화! 신세대 장병들의 활기찬 훈련과 더불어 자기계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으로 군생활이 더욱더 풍요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자 홍승화 소위

대담 · 정리/공군사관학교 중위 박 상 진

얼마 전 모 기업에서 여생도의 졸업식 모습을 광고화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실제 광고 내용처럼 이번 공사 51기 임관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홍승화 소위!

사관학교 졸업식 역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었던 홍승화 소위를 만나 보았다.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모 광고에서 여생도의 졸업식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된 소감을 밝힌다면?

감사합니다. 1학년 때 가입교 내무 대대장 생도가 대통령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약간은 부담스럽기까지 한 그런 자리에 제가 서있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제가 신경써야 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지요? 지금은 자만하지 않고 평소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생활신조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한번 친해지면 저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만큼 저를 쉽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집중을 잘 하지만 한번에 두 가지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활신조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입니다.

고 3때 입시홍보 포스터가 사관학교 입교의 계기가 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당시 특별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학교에 붙어있던 입시홍보 포스터를 친구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관학교 입교는 제가 바라던 특별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입교에 대한 결심을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제 친구들도 잘 할 것이라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입교를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다소 주저하셨지만 아버님은 적극 찬성하셨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현역으로 복무하실 때 장교에 대한 인상이 좋으셔서인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생도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어서 제가 받은 수

업들은 수학과 관련된 과목이 많았습니다. 원래 수학을 좋아해서 수업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형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체역학 수업과 로봇축구대회 참가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도생활 중 가장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일 것입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후배, 동기, 선배, 훈육관님, 중대장님, 교수님들 모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남자생도와의 경쟁에서 힘든 점이 없었는지요.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만, 1학년 때 구보를 할 때 잘못해 매우 의기소침했었습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차차 극복되었습니다.

새삼스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졸업소감을 밝힌다면?

가입교가 끝나고 메추리로 시작한 저의 생도생활이 벌써 졸업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도생활을 하면서 후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었으며, 라켓볼이라고 하는 운동도 배웠고, 가끔은 춤도 춰보고, 삼사체전을 통해서 응원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막상 졸업하려고 하니 저의 미래에 대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관학교를 준비 중인 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꾸준한 노력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점을 가질 때만이 생도생활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독려하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4년간의 생도생활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여성이 아닌 당당한 공군장교로 인정받고 싶다'는 홍승화 생도! 아니 홍승화 소위! 패기 있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 앞에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갈 공군의 모습이 비쳐지고 있었다.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여성이 아닌 당당한 공군장교로 인정받고 싶다'는 홍승화 생도! 아니 홍승화 소위!

봄철의 나른함 이기자!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홍 승 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흔히 봄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몸이 노곤하고, 피곤하기만 하다.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힘들고, 입맛도 없고, 식사 후에는 졸음이 쏟아져 참기 힘들 지경이다.

이와 같은 증상은 계절이 바뀌면서 찾아오는 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하는 변화가 심하고, 비오고 바람이 부는 등 기상이 불안정한 탓에 우리 몸이 미처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다.

기상이 변하면 신체 생리가 변한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에너지 및 영양소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또 피부혈관이 확장되어 피부의 영양이 좋아진다. 흔히 '봄이 되니 얼굴이 핀다'는 말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또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며, 위장 운동이 저하되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올 수 있다.

봄철에는 다른 계절에는 드문 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유행성결막염 등 눈에 질환이 생기기 쉽고, 천식, 비염(축농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도 흔히 발생한다. 또 습진 등 피부병, 편도선염이나 폐렴 등 호흡기질환과,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도 봄철에 조심해야 할 병이다. 이외에도 폐결핵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는 봄철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

야 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봄만 되면 흔히 경험하는 것이 춘곤증이다.

입맛이 없고 나른하다, 왠지 졸립고 특히 식사 후에는 잠이 밀려온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다,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기 싫다, 식사만 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빈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춘곤증 때문이다.

춘곤증은 앞서 말한 신진대사의 증가와 비타민 B1의 부족, 수면시간의 단축 등이 원인이다. 또 봄이 되면서 야외 활동과 모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과음, 불규칙한 수면이 늘게 되며, 봄이 되면 시기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직장에서도 새 사람들을 맞이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오는 등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 것도 춘곤증의 한 원인이 된다.

건강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요령 몇 가지를 꼽는다면, 우선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생활에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20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아침 출근 시간을 조금 앞당겨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도보로 출근하거나 주말에 가벼운 등산을 하는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운동의 장점에 비해서 그 실행률이 너무도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에게서도 나타난다. 운동이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1995)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들 중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17.2%이며, 성인의 약 2/3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진국들도 양상은 비슷해서 미국의 경우 성인의 약 60%가 운동을 하지 않고 약 7.6%만이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을 더 선호한다. 통신문화의 발달로 더욱더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게 되고 공장의 작업도 예전의 수동식에서 기계식,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작업에서의 운동량도 대폭 감소하였다. 인류가 힘겨운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줄어드는 운동량으로 인하여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동의 결핍을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보아 범국가적으로 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Healthy People 2000'의 목표로서 6세 이상 미국민의 적어도 30%가 경도 또는 중등도의 운동에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씩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회식, 과음 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줄이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적절한 휴식도 나른한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고, 특히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인체에 공급하기 위해 녹황색 채소류를 많이 먹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비타민정제를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4월에

제73기상전대 중령 **염 영 경**

땅에는 제법 물오른 파란 싹이 돋아나고, 나뭇가지에는 꽃눈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그지없이 아름다운 달 4월이다.

기압배치는 전형적인 봄철의 모양을 보이고 고기압은 약해져 맑은 날이 많아진다. 기온은 7℃에서 18℃로 하순이 되면 오히려 덥게 느껴지기도 한다. 강수량은 평균 88㎜로 조금 늘어나지만 아직 큰비는 기대하기 힘들다. 봄의 불청객 황사는 연평균 3회 정도 발생하지만 그중 반 이상이 4월에 영향을 준다. 황사가 발생하면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시정을 악화시키는 데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비행착각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비행불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제트 항공기의 엔진부분은 공기 흡입시 황사입자가 같이 유입되어 내부기관의 마찰증가로 인한 피스톤의 마모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 건강관리, 장비관리, 그리고 비행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4월에는 계절 특성상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5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그중 36%인 180여건이 4월에 집중되어 하루에도 6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피해액은 연평균 870억인데 그 중 90%에 가까운 780억 정도가 4월에 기록되었다. 이 수치는 다른 달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이며 피해액 면에서도 다른 11개월 동안 발생한 것의 10배나 되어 우리를 더욱 경계하게 한다.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수목에는 수액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많으며 기온의 상승으로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또한 4월에 피해액이 유난히 컸던 것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기상특성상 확산속도가 빨라져 산불의 규모 면에서 다른 달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는 물론 사격훈련이나 야외훈련시 장병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절기로는 황하의 물이 연중 가장 깨끗하다는 청명(淸明)이자 식목일이 5일이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한식(寒食)이 6일이며, 촉촉한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가 20일이다.

봄! 푸르게 하늘거리는 버드나무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봄바람에 나부끼는 여인네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는 계절, 전국의 산하가 아름다운 꽃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4월이지만 황사피해를 줄이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 무위의 전력손실을 막아 명랑한 병영생활에 적극 노력할 때이기도 하다.

부석사와 소수서원

글 · 사진 / 여행칼럼리스트 · 사진작가 김 석 종

하회마을로 유명한 안동과 함께 경북지방의 문화유적을 대표하는 영주시에 가면 한국의 불교와 유교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우릴 반긴다. 천년고찰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바로 그것이다. 부석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입적할 때까지 머물면서 화엄학을 전파했던 화엄종의 본산이다.

부석사라 이르게 된 것은 무량수전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아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뜬 돌'이라 부른데서 연유하였다. 주차장서 내려 산중턱을 따라 오롯이 뻗어 있는 오솔길을 걷다보면 사찰의 관문인 일주문을 만나게 되고, 이곳을 들어서면서 눈앞으로 펼쳐지는 공간배치는 다른 사찰과는 구분되는 자연스러움과 넉넉함이 넘쳐흐른다. 법당을 향해 올라가는 걸음마다 경건함이 배어나는 것은 이 절 곳곳에 위치한 여러 채의 옛 건물에서 느껴지는 위엄과 견실함이 보는 이를 압도하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 위엄 뒤에는 자상한 어머니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듯 이내 포근함으로 바뀌어 간다. 눈앞에 삼삼하게 열려있는 경내모습과 사찰을 병풍 모양 둘러치고 있는 소백산 자락의 풍광은 이 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어머니처럼 보듬는다.

부석사에는 국보급 유물들이 많지만, 특히 무량수전은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주불 전으로 아미타여래를 모신 전각이다. 아미타여래는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녔기

에 무량수불로 불린 연유로 이 본전의 이름이 지어졌다.

1916년 해체 보수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하면 고려 현종 7년에 원융국사가 무량수전을 중창하였으나 공민왕 7년(1358)에 왜적의 병화에 의해 불타버린 무량수전과 조사당이 고려 우왕 2년과 3년(1376-1377)에 각각 재건되었다고 적혀 있다. 무량수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며 기둥 사이의 주간 거리가 길고 기둥높이도 높아 건물이 당당하고 안정감있게 지어졌다. 팔작지붕에 배흘림기둥으로 이 건물은 소박하고도 실용적인 공간을 안배한 고려시대의 건축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무량수전의 내부에는 고려시대에 조성한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국보 45호)을 모셨는데 다른 협시보살 없이 홀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서방정토 아미타여래를 모시는 도량이니만큼 서방에 계시는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서쪽에 여래좌상을 안치시키고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염력을 보내기 위해 동쪽을 향하게 했다고 한다. 부석사에는 이 밖에도 국보 19호인 조사당(祖師堂)과 조사당 내벽에 그려 넣은 조사당벽화가 유명하다. 이 벽화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화로 사천왕상 4면과 보살상 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부석사 창건당시에 조성된 신라석등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무량수전앞 석등과 범종각, 선묘각등도 꼭 둘러보아야 할 건물들이다. 그러나 부석사 기행의 진수는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계단 위에 위치한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풍경의 파노라마다.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엎드린 채 소담하게 모여 있는 경내건물들의 지붕들과 멀리 펼쳐진 소백의 연봉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뛰어난 경관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소백산의 장관을 시문으로 남겼으며 그 현판들이 누각 내부에 걸려 있다. 부석사에서 차로 15분 내외에 위치한 소수서원은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으로 창건하고 퇴계 이황이 사액서원으로 승격시킨 한국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 함은 임금이 현판을 보내 인정한 사원을 뜻한다. 서원이란 선비에 대한 교육과 선현에 대한 제사의 기능을 갖춘 조선시대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 안에는 학습시설과 선현의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소수서원은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1542년 우리 나라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고려말의 대 학자 안향의 옛 집터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선비들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백운동서원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퇴계 이황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 명종에게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과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 이를 재가 받음으로써 소수서원의 일대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명종은 친필로 쓴 소수서원(紹修書院) 현판과 서적과 노비를 보냈으며 전답을 하사하여, 소수서원이 명실 공히 조선의 유교정신을 지탱해나갈 중심 서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순흥면 내죽리 죽계천(竹溪川)이 휘돌아 나가는 평지에 위치한 소수서원은 평지에 입지하여, 뒤가 허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원주변에 울창한 송림을 만들어 고즈넉하고 운치가 넘치는 자연경관을 조성해 놓은 것이 옛 선비들의 멋들어진 풍류를 가늠케 한다. 원래 소수서원 터는 신라때 창건된 숙수사(宿水寺)의 옛 절터였다. 아직도 서원의 입구에는 숙수사의 당간지주(보물 55호)가 남아 있고, 서원

경내 곳곳에 사찰로 쓰였던 초석이나 불대좌석 등이 변형된 용도로 남아 있다.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원답게 특정한 형식의 틀이나 배치규범을 따르지 않고 여러 건물들이 자유롭게 배열된 것이 특징으로 누각이나 정문 같은 별도의 경계건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서원의 작은 대문 앞쪽 개울가에 경렴정(景濂亭)이란 정자를 세워 후대서원의 누각이 가졌던 휴식기능을 대신하였다. 경내에는 강당인 명륜당(明倫堂), 사당인 문성공묘(文成公廟), 기숙사였던 일신재, 직방재, 지락재 등이 있었으며, 장서각과 전사청, 그리고 안향과 주세붕의 영정을 모신 영정각이 있다. 서원의 북쪽에는 1980년대에 신축한 유물관이 있으며 이 유물관에는 유물관을 지으면서 출토된 숙수사의 잔재들과 사원 설립부터 1895년까지 유생들의 성적표를 비롯한 각종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당시 서원의 강학모습 등이 재현되어 있다. 현재 소수서원 뒤에는 선비촌을 재현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선비촌이 완공되면 소수서원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이다. 소수서원의 건축물들은 군더더기 없는 단순 소박함이 특징이며 청렴을 생활신조로 삼았던 옛 선비정신의 자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이 서원에서 배출된 성리학자나 선비들, 유생들의 숫자는 4천여명을 헤아린다. 소수서원은 당시 신분계급사회의 기본 틀을 깬 일화로 유명하다. 퇴계 이황은 대장간의 공인인 배순(裵純)을 제자로 받아들여 평민교육을 몸소 실천했다. 또 소수서원에서 퇴계로부터 수학한 제자들은 퇴계 사후인 1575년(선조 8년)에 도산서당을 도산서원으로 승격시키게 된다. 이 같이 소수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중심도장으로 우리 정신문화의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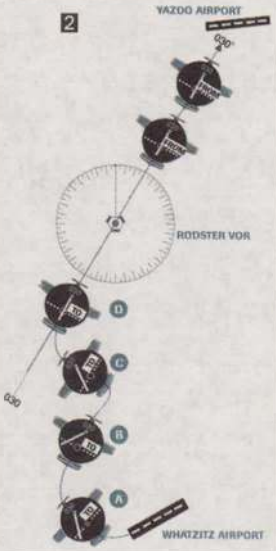
지금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연재되었던 '풍경의 발견'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 298호까지만 연재됩니다. 다음 호부터는 새로운 코너 '데마있는 나들이'가 공군지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 안양루서 내려다본 부석사 건물들의 지붕과 그 뒤로 병풍같이 둘러친 소백산 연봉이 포근하다.
2. 소수서원의 본 건물. 주세붕이 1542년 백운동서원으로 창건하고 이황이 사액서원으로 승격시킨 한국최초의 사액서원이다.
3. 신라 문무왕 16년에 창건한 부석사의 전경.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체득한 화엄교학을 펴기 위해 귀국하여 이 절을 짓고 우리나라 화엄종의 본산으로 삼았다.
4. 무량수전 서쪽 큰 바위 옆에 새겨진 부석(떠있는 돌) 음각. 이 바위는 아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절 이름도 이를 따서 지었다.
5. 범종각에 있는 법고와 목어

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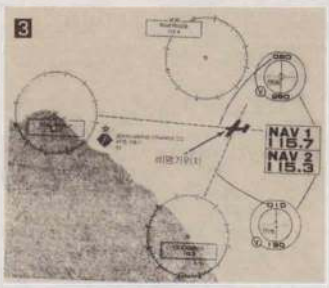
프로그래머 · 게임평론가 **최 세 영**(artie@artie.pe.kr)

시뮬레이션 게임은 컴퓨터 게임 장르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게임이다. 게임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재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소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재미를 증가시키는 많은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게임의 재미를 위해 배치한 요소는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 그 뛰어난 사실성에 새삼 놀라게 된다. 이 사실성이야말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이면서, 초기부터 추구해온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재미없는 게임이 될 수도 있었지만, 비행을 꿈꾸어온 이들에게는 소중한 간접 경험의 기회와 재미를 주고 있다.



1. 항법 계기들
2. VOR의 작동방법
3. 두 개의 VOR을 이용하는 법

Flight



이런 사실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법(Navigation)이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주목표는 물론 비행이다. 어떤 공항에서 이륙해서, 다른 공항에 착륙하는 간단한 목적을 가지지만, 이 과정인 항법을 배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주위의 지형 지물을 이용

Simulator(2)

해, 시각에 의존하는 목측 비행(VFR)이 있는 반면,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시계가 안 좋아 계기를 이용하는 계기 비행(IFR)도 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진수는 이 계기 비행에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목표를 찾아가 착륙하는 과정의 재미를 느끼려면, 계기비행에 도전해야 한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항법 장치 중 하나는 VOR이다. VOR은 Very high frequency Omnidirectional Range의 약자로, 초단파 전방향식 무선 표지로 번역된다. 쉽게 말해 VOR은 하늘의 등대와도 같다. 지상의 VOR 관제소에서 모든 방향으로 보낸 신호를 탐지하여, 진행 경로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VO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있는 계기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에는 VOR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Whatzitz 공항을 이륙하여, Yazoo 공항에 착륙하려 할 때, 중간에 있는 Rodster VOR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Nav Radio를 이용하여, 이 VOR 관제소의 무선주파수와 동일하게 조정하면, 비행기의 VOR 계기는 이 신호를 포착하여, 현재 진행 경로를 알려준다. 그림에서처럼 각 위치에 따라 VOR의 수직 막대가 변하는데, 조정해 놓은 방향과 일치할 때에 완전한 수직을 이루게 된다. 네모 안의 글자는 VOR 관제소로 향할 때는 "TO"가 되고, 관제소의 범위 안에서는 "OFF"가, 멀어질 때는 "FROM"이 된다.

하나의 VOR로는 진행 방향만 알 수 있고 현재의 위치는 알 수 없다. 현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또 하나의 VOR을 이용하는 것이다. 두 개의 VOR을 사용하면, 그림 3처럼 서로 다른 직선의 교점이 자신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VOR과 DME를 같이 이용하는 것이다. DME는 거리측정장치(Distance Measuring Equipment)의 약어로, VOR 관제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 주는 기기이다. 따라서, 진행방향과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방향이나 위치를 알기 위해, ADF나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GPS가 사용된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역시 이런 장치들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항해술이 필요했다. 이런 항해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별의 위치를 가지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었다. 현재의 강대국은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 즉, 항공우주 기술이 발전된 나라로서 인공위성 개발에 강점을 보인다. 인공위성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자세 제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 제어를 위해서도 결국 별의 위치를 근거로 한다고 하니, 과거나 지금이나 하늘을 읽을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인 셈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위성을 개발해 발사했고, 국산 초음속 항공기도 개발되었다.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처럼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게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기 가득 머금은 그녀의

- 유화작가 정 원 편 -

대전 MBC 리포터 **김 선 영**

한남대학교 회화과 졸업
동 대학원 미술과 졸업
현재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중부대학교 디지털 디자인학과 출강

이웃집 울타리 밖으로 뻗어 나온 목련 꽃망울 터지는 것을 기다리기 답답증이 나서 '꽃시장'을 둘러보았다. 울타리 밑에 옹기종기 피어 있을 듯한 쥬리안. 날개를 살포시 접고 있는 나비와도 같은 시크라멘. 노란 고개를 떨구고 있는 수선화, 연산홍. 촉촉이 젖어 있는 생물들이 꼬물거리며 숨을 쉬고 있다. 그 곳의 꽃들은 꽃가게 진열장 조명 아래의 꽃과는 사뭇 다르다. 장미나 향이 진한 프리지어처럼 우리의 눈과 코를 확 자극하지는 않지만, 뿌리 깊숙이 올라오는 생기와 살아 있음이 느껴진다.

유화작가 '정원'의 화폭 속의 꽃도 그와 같다. 보통 '유화'라 하면 강렬한 색채와 두터운 물감의 터치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녀의 꽃은 물 위에 떠 있는, 아니 물에 잠겨 있는 듯한 생생함과 투명함이 느껴진다.

그것은 그녀만의 복잡하고도 끊기 있는 작업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인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의 미술시간을 떠올려 보자.

크레파스로 한껏 뽐내며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물감을 풀어 밑바탕을 칠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반발성'의 기법이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 표현되는 것. 작가 정원의 그

'정원...'

림도 바로 이 반발성의 기법을 이용한 것이라 하겠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밑칠을 하고, 그 위에 9번까지 겹쳐서 작업을 한다. 항상 그러하듯이 말로는, 글로는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적정한 시간과 끈기와 노력을 요하는 작업인 것이다. 그녀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꽃들은 오랜 시간 속에서 그녀만의 기법으로 피어난 것이다.

작가 '정원'은 미니멀 아트(minimal art : '최소한의 예술'이란 뜻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미술에 부각된 경향)를 추구한다. 시간의 지날수록 그 경향은 뚜렷이 드러나는데, 말도 그러하듯이 주절주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한마디 명쾌한 말이 사람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 드는 법.

그녀의 그림도 그렇다. 혼색이 적고 최소한의 단순화 작업을 거친 꽃은 어찌 보면 형태만 잡고 있는 듯하지만, 꽃의 색과 향과 꽃잎의 부드러움까지 묘사해내고 있다.

그녀에게 물었다. 왜 꽃만 그리는지. 그녀 자신도 처음엔 고민을 했단다.

'왜 내가 꽃만 그리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접은 지 오래다. 자신이 붓을 들었을 때 꽃이 그려지면 꽃을 그리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을 그리면 그리는 것이지, 왜 그것을 하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10살 난 아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앳된 미소를 지닌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주위를 환하게 하는 꽃을 그린다. 가까이 다가가면 코끝에 싱그러운 물방울이 튀어 오를 것 같은 꽃을 그린다.

'정 원'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의 아름다운 정원엔 물기 가득 머금은 꽃들이 가득하다.

이 아름다운 봄처럼...

공연장 관람예절

공군본부 중령 **이 상 수**

공연을 효과적으로 감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연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람할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는 것이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이 된다.

옷차림은 단정하게

공연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정장 출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절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예의에 맞도록 단정한 옷차림과 신발착용을 하여 다른 관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한다.

7세 이하 어린이의 동반관람은 신중하게

때때로 입장할 수 없는 7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자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어린이는 다른 가족이나 탁아시설에 맡기고 공연장을 찾는 것이 기본예절이다. 결국 동반한 어린이로 인해 본인의 공연감상을 망치고 다른 감상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불행함이 없어야 한다.

공연장 도착은 20분 전, 객석입장은 10분 전

원칙적으로 공연장 입장은 공연시작 이후엔 출입금지다. 그러나 늦게 와서도 입장할 수 있었다면 대기석에서 기다린 후 중간 휴식시간에 자신의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공연장 도착은 최소한 20분 전까지는 완료하고 10분 전에는 자신의 좌석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음식물은 휴게실에서 공연장에선 공연감상만

모든 일체의 음식물은 공연장 안으로 가져갈 수 없다. 자신의 조그만 부주의가 공연자는 물론 객석의 관람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어 공연장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음식물은 꼭 휴게실에서 먹은 후 입장해야 한다.

빈자리 찾아 공연장 이동은 삼가하기를

자신의 자리보다 나은 빈자리가 있다고 공연 시작 후에 이동하는 것은 공연자나 관람자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으로 꼴불견이다. 공연 중 이동은 가급적 최대한 자제하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공연장에서 주의해야 할 물건들

소리가 많이 나는 비닐제품이나 화환류 등은 안내데스크 등에 맡기고 호출기나 휴대폰은 전원을 끄고 입장해야 한다.

다른 관객의 감상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피하는 것. 이것이 공연장의 기본예절이다.

데어데블

약점이 강점이 된 코믹 블록버스터

영화평론가 김 지 훈

뉴욕의 빈민가 헬스 키친에서 어린 시절 방사능 폐기물에 노출된 후 실명한 매트 머독(벤 애플렉)은 시력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감각들이 초인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믿음직스러웠던 복싱 선수 아버지가 뉴욕 암흑가의 큰손 '킹 핀'에 의해 살해당한 머독은 성인이 된 후 낮에는 범죄 전문 변호사로 살아가는 동시에 밤에는 "두려움 없는 인간" 데어데블로 변신하여 불의를 응징한다. 그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엘렉트라(제니퍼 가너)와 사랑을 키워가지만 킹 핀이 사주한 살인청부업자 '불스 아이(콜린 파렐)'가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하면서 데어데블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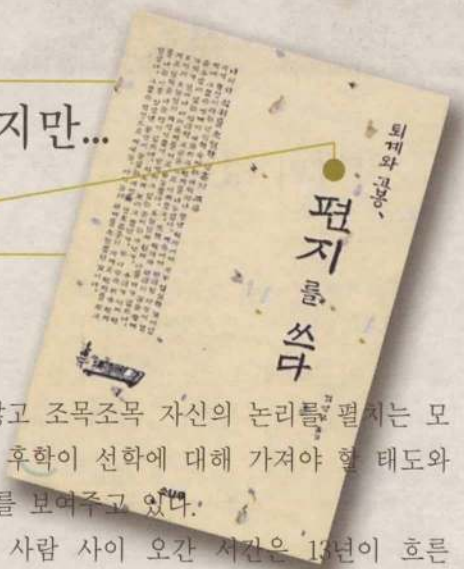
슈퍼 히어로 데어데블은 캐릭터 무비(character movie)라는 신경향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평정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한 '마블 코믹스' 사단의 일원이다. 그렇지만 겉모습과 주특기만으로는 이 캐릭터에게 빼어난 가산점을 줄 여지는 많지 않다. 겉모습은 마치 배트맨이 착 달라붙는 빨간 가죽옷으로 갈아입은 후 망토를 벗어 던진 듯한 몰골이다. 마천루의 구석구석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내공은 기특하지만 마블의 선배인 스파이더 맨에게는 한 수 뒤진다. 이런 전투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데어데블〉의 흥행 파워는 두려움을 모른 채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다.

〈데어데블〉은 성당 꼭대기에 매달려있던 초인영웅이 바닥으로 떨어져 비틀비틀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공포는 저리 가라'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위풍당당한 주인공이 이름값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그 사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영화는 약 30분만에 주인공의 물리적 결함과 정신적 취약점 모두를 드러내 놓는다.

명/눈뜸의 공존상태는 '변호사 매트/데어데블'이라는 자아의 이중성과 인접 관계를 이룬다. 매트의 아버지는 복싱을 그만둔 후 술에 절어 지내며 폭력으로 행인들의 주머니를 턴다. 그것이 매트가 이 세상에서 육안으로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후 깊이 반성한 아버지는 건실하게 재기를 도모하고 아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암흑의 무자비함은 아버지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다. 정의의 여신상에서 저울보다 칼이 먼저 나가는 꼴이다. 수호신보다는 가학적인 킬러처럼 보이는 그의 인격은 선악의 엄밀한 분별이 흐려진 불투명한 형상을 띠게 된다. 상투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고백성사의 테마가 종교적으로 경직되지 않아 보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자기 회의와 불확실성에 고통받는 초인영웅 캐릭터의 바통을 무리 없이 이어받은 이 영화는 시각적 마법에 주력한 특수효과와 무난한 쿵푸 액션으로 블록버스터의 준수한 모양새도 갖춘다. 속편을 이어나가기 위해 결말을 작위적으로 짜 맞춘 듯한 아쉬움도 속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눈감아줄 수 있다.

그런 스승과 제자가 되고 싶지만...
퇴계와 고봉,



김영두 옮김/소나무

KBS 기자 **이 진 성**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보이기 시작하는 이 때, 대구로 내려간 기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회의가 들고 무엇보다 능력 없음이 한스럽기까지 했다. 애써 여유를 찾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서점에 들러 이 책을 골랐다.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1558년부터 한문으로 주고받은 편지를 한글로 옮긴 이 책은, 사실 필자는 제대로 읽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스물 여섯 살이나 차이나는 두 사람이 학문하는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논쟁을 주고받는 대목은 진실로 아름다웠다. 더욱이 처음 편지를 주고받을 무렵 이미 퇴계는 성리학의 거목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고봉은 겨우 벼슬길에 나아간 상태였으니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파격,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특히 쉰 줄 후반의 퇴계가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붓을 들어 서른 초반의 고봉에게 서간을 써내려 가는 모습 떠올리니 고인(古人)이 말한 공부하는 사람의 사귐은 바로 그러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 경지란 선학이 후학에 대해 가지는 후생가외(後生可畏)를 훨씬 뛰어넘는다.

고봉은 또 어떠한가.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까마득한 대가의 주장에 주눅들지 않고 조목조목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모습은 후학이 선학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 사이 오간 서간은 13년이 흐른 1570년, 퇴계가 세상을 떠남과 함께 끝을 맺었다. 두 해 뒤에는 평생을 자잘한 병마와 싸워야 했던 고봉 또한 이승을 등졌다.

사족... 그리고 사백여 년의 흐른 1989년 3월 7일 기대승의 몇 대 손인지 모를 젊은 시인 기형도는 파고다 공원 근처 한 삼류극장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이 책을 읽다보니 그가 남긴 한 권의 시집 속 시 하나가 떠올랐다.

나무의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득하였다/ 은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돌층계에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 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 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이었다, 나는 떠나기가 두려웠다,

「대학 시절」 전문(全文)

공군인의 쉼터 : 공군회관 개관

공군인의 쉼터, 공군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약 2년의 걸친 공사 끝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500여 평의 공군회관이 객실, 예식장, 연회실 등을 갖추고 문을 연 것.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공군회관의 가장 큰 특징은 30평형 객실 1개, 15평형 객실 8개 등 총 26개의 객실을 마련한 것이다. 예전의 공군회관에는 객실이 없어, 출장 및 업무 등으로 서울을 찾은 공군 가족들이 '용사의 집', '해군회관' 등 타군 시설을 이용하던 것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안락한 쉼터를 마련하게 된 것.

또 7층은 스카이 라운지와 옥외정원으로 꾸며, 공군회관의 품격과 기품을 더했다

1층과 2층에 꾸며진 예식홀에는 기품 있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생각하는 공군가족들로 인해서 벌써부터 예약이 밀린다는 후문이다.

새롭게 개관하는 공군회관이 언제까지나 공군가족들에게 기억되는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예약전화번호 : 군)923-6080, 일반)823-6226

※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용 도
지 상	7층	스카이라운지, 옥외정원(2개)
	4~6층	객실(26실) : 30평(1), 15평(8), 8평(17)
	3층	피로연장, 연회실(4)
	2층	예식장, 피로연장, 관리사무실, 연회실(5)
	1층	예식장, 피로연장, 사진실, 미용실, 커피숍, 드레스실, 신부대기실, VIP 대기실
지 하	1층	지하주차장(135대)
	2층	

'인생역전' 속에 숨은 진실

방송작가 김 은 희

나는 영화배우 송강호를 좋아했다. 그의 첫 출연작인 '넘버3'는 물론, '조용한 가족', '반칙왕', '공동경비구역 JSA'와 '복수는 나의 것'까지도 좋아했다. 그런데 한동안 싫어한 적이 있었다. 영화가 아니라 한 광고 때문이었다. 영화 출연작 선정에 까다롭다는 그는 결정적으로 광고 선택에서 '판단 미스'를 했음에 분명했다. 하필 '인생역전 로또' 광고라니. 그래, 그저 그의 서민적인 인상을 팔아먹으려는 광고주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간 거겠지.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에 대한 애정을 회복한 채 차기작인 '살인의 추억'을 기다리고 있다.

광풍도 그런 광풍이 없었다. 사상 최대의 당첨금액을 두고 세상이 떠들썩했던 올초, (알고 보니 그건 잘못 유포된 유언비어였다. 애당초 당첨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그저 열풍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세상은 온통 '로또'라는 두 글자로 채워진 것만 같았다. 이재에 밝지 못하고 만사에 심드렁한 내가 '로또'라는 게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처음 피부로 느낀 건 추첨 며칠을 앞둔 어느 점심시간이었다. 빌딩 지하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두 신사와 스쳐지나가며 듣게 된 대화가 발단이었다. "로또 샀냐?" "아니, 이제 사러 가야지." "아직도 안 사고 뭐했니?" "갈 때마다 사람들 줄이 어찌나 긴 지." "목욕재개는 꼭 하고 가라." 그제서야 돌아오며 보니, 정말로 복권 판매중인 편의점의 줄이 문 밖으로 삐져나오다 못해 꾸불꾸불 뱀모양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방송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심지어 로또를 벽에 붙여놓고 고사를 지내는 인간도 있었다. 모 프로그램에서는 단체복권을 사러갈 사람을 사다리를 그려 뽑기도 했다. "나 다음주 월요일 출근 안할지도 몰라. 당첨되면 바로 사표낼 거거든." 농담까지 유행했다. 인터넷에선 로또족보(!)라는 게 흘러다녔고 버스 안에선 사람들이 당첨시 행동요령을 두고 떠들어댔다. 어지간히 짜증이 나 있을 무렵, 전화 한 통이 왔다. "너, 됐냐?" "뭐가?" "뭐긴 뭐야. 로또지." "안 샀는데?" "….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인간도 있구나." 알고보니 그날이 그 대단한 열풍의 마지막 날, 추첨일이었던 것이다.

아! 대체 그놈의 로또가 뭐길래.

그런데 얼마 전 최초로 내 손에 로또가 쥐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큰언니네 집에 갔던 날, 언니가 내 손을 잡고 향한 곳이 바로 '복권방'이라는 곳이었다. "딱 두 장씩만 갖자." 그날, 나는 로또를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 알았다(사람들이 로또를 두고 '사다'라는 표현 대신 '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다). 공무원 남편에 아이 둘을 둔 평범한 소시민인 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번호에 색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차마 '이거 다 돈낭비야.'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언니의 선물을 지갑에 넣어두고 있다가 추첨일 며칠이 지나서야 생각나 번호를 확인해보았다. 에게, 달랑 하나? 언니 소식이 궁금했다. 그런데 전화 속에서의 언니 대답은… 이랬다. "나? 아직 안 맞춰봤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즐거웠으면 됐지 뭘. 그런 기대를 왜 해? 건강 버리게."

아… 대체 복권이라는 게 뭐길래. 기대 없이, 당첨에 대한 꿈도 없이 복권을 사는 사람이라니. 정말이지 그 심리를 잘 모르겠었다. 그런데 며칠 전, 나는 어쩌면 복권 속에 숨어있을지도 모를 '진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이었다. 신호등 앞에 서있는데, 뒤에서 "복권 두 장 주세요!" 소리가 들렸다. 또 복권이야? 돌아봤더니,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 두 명이 막 창구에서 내민 복권(로또는 아니었다)을 받아들고 있었다. 한눈에도 바로 곁 대형 공사장에서 나온 인부아저씨들이 틀림없었다. 요즘도 저런 복권 사는 사람이 있나? 하고 있는데 뒤이어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거 한 장 가져라. 되면 내 덕인 줄 알어." "되긴 뭘 돼 이 사람아." "아, 우리 같은 사람은 복권도 못사나? 되면 술 한 잔 먹고 안되면 그 덕에 또 술 한 잔 먹는 거지. 복권이 별거야? 인생역전이 별거냐고. 허허…"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역전이라는 게, 꼭 수십억의 '돈'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수천 만원의 주식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된 후 자살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이들만 아니라면, 복권은 그저 무료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 잠시 반짝거릴 그 무엇인지도. 소시민에겐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즐거운 '상상'이나 노동의 피로를 적셔줄 '술 한 잔'만 보장해줄 수 있다면, 복권의 진짜 임무는 어쩌면 딱, 그만큼일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요즘 로또의 '미친 바람'이 조금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하다.

보도의 핵심, 타이밍!

제19전투비행단 소령 이 재 득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은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나 또한 그러했다. 정훈공보업무는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이렇게 시작한 정훈공보분야 체험은 많은 생각과 내가 몸담고 있는 공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일선에 근무하는 조종사에게는 낯설은 감이 많았고, 공보분야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다. 그러기에 나에게 다가온 이 기회는 지금 생각해보면 커다란 행운이었다.

작년 8월 19일에 발 디딘 나의 공보 업무 견습은 바로 다음날인 8월 20일에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초도비행 취재지원을 위해 ○○비행장으로 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초도비행은 여러 가지 위험과 실패의 부담을 갖고 있기에 섣불리 방송에 내 보내기 위한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촬영은 하고 초도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방송에 내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벽에 출발하여 비행장에 도착하니 날씨가 초도비행을 위한 기상 제한치를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계획되었던 비행이 3번이나 스케줄이 변경되면서 오후 16시 30분에 마무리되었다.

방송이나 신문은 마감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때문에 마감시간을 놓치면 언론에 나오기가 힘든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이 커다란 사건은 시간상의 문제로 아쉽게도 전국방송을 타지 못했다. 이렇듯 언론에 있어 시간은 분초를 다투는 조종사만큼이나 중요하다.

9월에는 최초의 여성 조종사가 탄생되었다. 고등비행 수료식을 하는 ○○비행장의 날씨는 그날의 보도를 돕기라도 하듯 화창하였다. 기자들을 태운 수송기는 행사장에 사뿐히 내려앉았고 수료식은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취재지원 성공과 더불어 저녁 뉴스에 멋있게 장식될 후에 조종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전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었나? 오는 도중 우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날 '개구리 소년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도는 우선권(Priority)에서 밀려 수도권 방송에만 국한되고 전국방송은 타지 못했다. 물론 다음날 전 신문에서 보도하고, 주·월간지에서 크게 관심을 갖는 등 이른바 대박을 터트렸지만 전국 방송을 타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못내 아쉽다.

이렇듯 우리를 알리고 보도하려는 작은 기사 하나라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힘든 과정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문의 1단 기사와 30초의 방송이 나올 수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정훈공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공군을 홍보하는 데에는 정훈공보실에 근무하는 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은 공군을 더욱 신뢰할 것이며 더 좋은 자원이 공군에 들어와 공군을 한층 더 빛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물론 그중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항공기 사고와 침수피해와 같은 불행한 사고도 있었다. 공군의 항공기 사고는 그 여파가 그 어떠한 사고보다 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군에 있어 이러한 불의의 사고는 군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사를 넘나드는 비상상황에서도 항공기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종사의 필사의 노력과 항공기 결함을 막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는 정비사 및 지원요원들의 노력이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어 군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강릉침수 피해 또한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고가의 장비들에 손실을 가져온 안타까운 일이었다. 사실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는 강릉비행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는 수재민이 있는 등 그 아픔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군이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점을 꼬집고 나왔지만 순식간에 몰아닥친 자연재난은 인간을 나약한 존재로 몰아세웠고, 엄청난 비가 어느 곳에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대피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공군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복구작업으로 최단시간 내에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가능상태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또 이런 와중에서도 식수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공군은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즘 해군에서는 '태양 속으로'라는 드라마를 만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KTF 광고방송에 육사 졸업식이 나오는 등 자기를 알리려는 노력들이 대단하다. 방송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여 한번 TV나 신문에 나오는 것이 천문학적인 돈에 비교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홍보하는 데에는 정훈공보실에 근무하는 요원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은 공군을 더욱 신뢰할 것이며 더 좋은 자원이 공군에 들어와 공군을 한층 더 빛낼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스팸메일의 횡포,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공군본부 검찰부 대위(진) **왕 해 진**

전자메일(흔히 'e메일'이라 부른다)을 검색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본다. 새로온 편지가 10여 통이나 된다. 나에게 온 메일이 이렇게 많은가? 반갑고 궁금한 마음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편지읽기를 클릭해 본다. 하지만 설레던 마음도 잠시뿐 눈앞에 나타난 화면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성인 동영상 서비스, CD 싸게 팔아요', '△양 비디오 풀 버전'... 대부분의 메일이 상업성 광고메일이다. 이런 종류의 광고메일을 모두 삭제하고 나니 정작 남는 것은 한두 개뿐.

언제부터인가 전자메일 수신함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광고성 메일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루에 수십 통이나 되는 무차별적 광고성 전자메일인 소위 스팸(스팸(spam)이라는 말은 미국의 Hormel Foods사가 돼지고기 햄통조림 상품 'spam'에 대한 엄청난 양의 광고를 함으로 인해 공해가 야기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메일을 삭제하는데 짜증이 날 정도가 되었다. 특히 군복무로 오랫동안 수신 메일을 지우지 못한 공군 장병들은 엄청난 스팸메일로 인해 수신 용량이 초과되어 광고성 메일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메일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스팸메일은 쇼핑몰과 같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인터넷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상 게시판 등에서 전자메일 추출기로 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1분에 수만 통의 광고성 메일을 보냄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인사이트 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유포하여 인터넷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스팸메일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자 정부는 작년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일부 규정은 2003년 6월에 시행된다.) 위 개정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을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42조의2, 제64조 제2호),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경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제50조 제2항),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제50조 제4항),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제50조 제6항) 및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50조의 2)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67조 제1항).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 법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련 법규 개정만으로 밀려드는 스팸메일의 횡포를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스팸메일을 계속 쏟아내고, 스팸메일의 발송자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 스팸메일의 발송 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 개정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불법스팸메일을 추적하여 발송자를 검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 법이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처벌 근거 법규가 있어도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면 유명무실한 입법에 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스팸메일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본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책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전자메일주소 추출 차단 방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송되는 불법스팸메일을 신고하는 등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스팸메일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스팸메일 문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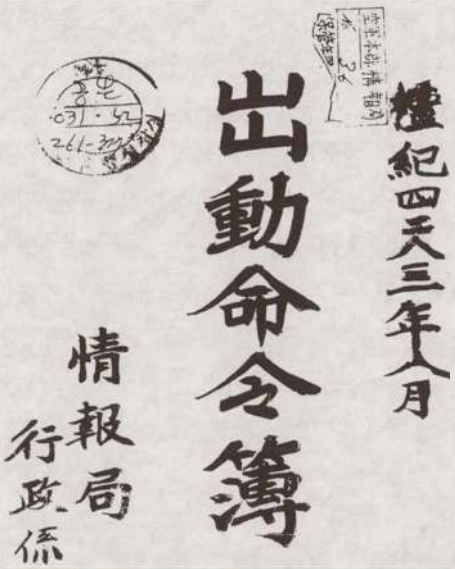
이제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전개될 시기가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공군 장병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당장 나 자신을 스팸메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스팸메일 방지 수칙 및 대처 방법 습득에 노력해야 한다.

공군 장병들이 스팸메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향후 불법스팸메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첨단 사이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기록물 보존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중령 **이 원 창**

정부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 경쟁력의 중요변수로 등장한 기록물 관리를 법률로 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법률에 의하면 군기관은 특수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인정하여 역사자료의 보존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생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997년 유네스코는 세계기록 유산 부문에 한국의 '조선왕조실록'을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임을 여기게 한 것은 기록보존을 소중히 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실례로 조선 정조(正祖)대의 수원 신도시 건설공사 보고서인 '화성성역의 궤'는 건설 공사에 동원된 물품과 도구, 참여 인부의 명단, 복무일수, 품값은 물론 간식 종류까지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하여 당시의 국정이나 후세에 참고토록 한 사실은 우리 후손들을 숙연하게 한다.

그러나 일제 침략의 35년 동안 기록물의 훼손, 강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전쟁과 경제개발로 이어지는 격동기 속에서는 안위와 의식주 해결이 국가의 우선 순위가 됨에 따라 기록물 보존기능은 소외되어 최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과 같은 분쟁에서 보듯이 기록물 보존의 미비로 인한 증거물 부족으로 국가간 분쟁에서 불이익을 초래시키기도 한다. 이렇듯이 기록보존의 중요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역사적 사실의 판단 근거가 되게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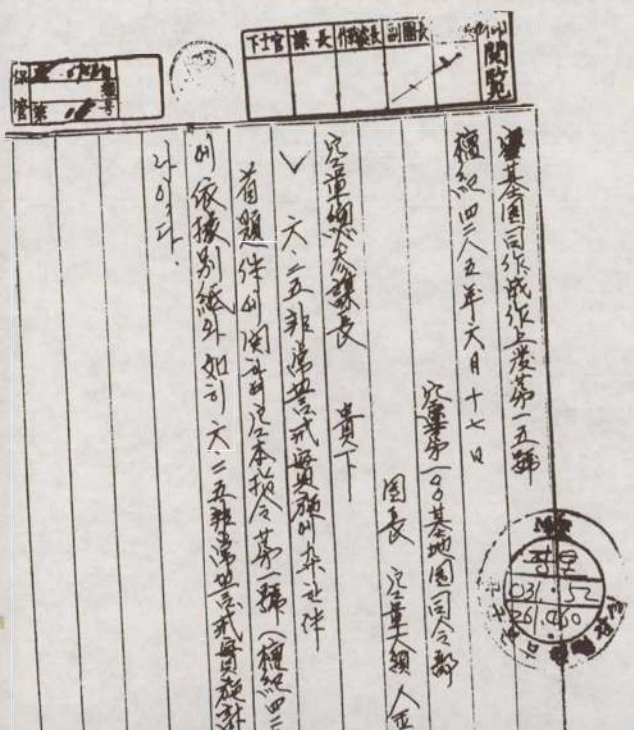
空軍日誌 五三、五二、一一 2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 경쟁력의 중요변수로 등장한 기록물 관리를 법률로 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법률에 의하면 군기관은 특수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인정하여 역사자료의 보존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생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령의 제·개정이나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협약, 협정, 의정서,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와 참모총장이 정하는 주요회의의 회의록(회의명,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회의진행 순서, 안건, 발의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포함)과 시청각 기록물,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이 포함되며,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 또한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심의를 거쳐야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록물의 자의적인 폐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무단 폐기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첨단 정보 과학군을 지향하는 우리 공군에서는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투명성을 증빙하고 공군의 발전과정을 알리는 사료적인 가치와 임무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보적 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물이 잘 보관·보존되도록 함으로써 후손들이 이를 활용하여 더욱 발전된 공군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군에서는 올해 기록물 보존의 기본이 되는 분류 기준표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과거의 기록물을 전산기기와 연결시켜 책상 위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과 원본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시설물 건립, 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다.

『공군 종합기록물 관리센터』의 태동을 고대하며 "기록을 하는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의 선각정신을 되새겨 보며, 기록물 보존을 위한 공군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알립니다

항공우주전략동호회 소개

국방연구원 지식관리시스템(나지스 : 나라를 지키는 지식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에 운영되고 있는 "항공우주전략 동호회(이하 : 항우동)"를 소개합니다. 항우동은 주변국의 우주분야 뉴스, 최근 발전동향,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발전계획 등 수백 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우주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국방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식역량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우동에 방문하려면 국방 인트라넷망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http://ekida.kida.mil로 접속한 후 화면상단에 위치한 커뮤니티 메뉴를 선택하여 항공우주전략동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당신도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2003년도 공군 조종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임관일 기준 만 20세~26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 2학년 재학생(단, 2학년은 1학년 성적 70/100 이상인 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교부 및 접수는 4월 15일까지 각 시·도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며, 합격자에게는 대학재학 중 소정의 장학금(등록금+수학보조비)을 지급하며, 임관(비행교육 수료) 후 공군 조종장교로 복무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푸른 하늘과 공군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문의 : (02) 506-1153 효)1153

인터넷 :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go.kr)

공군모집「조종장학생」

보라매회 '대한민국공군전우회'로 확대 개편

공군 전역장교를 대상으로 지난 '68년 5월 조직된 '보라매회'가 최근 공군에서 전역한 부사관, 병, 그리고 퇴직 군무원까지 함께하는 '대한민국공군전우회'로 확대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전우회는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 모든 공군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등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02)825-8461

인터넷 홈페이지 : www.airforce.ne.kr

2003. 4

월간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2.6.1~2004.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3 2 0 - 9 1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월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효) 6231-7, 02) 506-6231-7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공군지는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문제는 59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문제는 59쪽에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03. 4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공군지는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이번호 문제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독자엽서에 4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열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 문화상품권

-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병장 박진호
- 충남 논산시 두마면 병장 유준석
- 경남 김해시 구산동 준위 차경호
- 부산시 북구 구포3동 원사 김상태
- 대구시 동구 검사동 상병 박진우
- 경기 시흥시 대야동 임종호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미정
- 전남 목포시 연산동 곽명훈
- 서울 마포구 구수동 오경화
- 경기 용인시 포곡면 신현기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공군지 독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독자마당, 장병문예, 장병기고, 생각하는 글 등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역 장병 및 군무원께서는 소속부대 정훈실(정훈담당)을 통해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12-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지〉 담당자

<편집실에게>

〈공군〉지 처음 읽어보았는데 생각한 것과는 달리 부담감없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공군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전남 함평군 이지양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 - 우주기상(1)', 평소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얻고 흥미진진함이 좋았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병 김용남

공군인들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편집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예 : 릴레이 도서추천, 1문1답 등)를 좀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북 청원군 이도영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연에 관한 기획물은 어떨까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공군지 파이팅!

경남 창원시 중위 이용호

〈공군〉을 보면서 군내잡지로서 이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은 월간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공군의 위상을 높이고, 흥미 또한 유발할 수 있는 월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 진해시 김찬영

「I LOVE AIR FORCE, "감사합니다!"」를 읽으면서 집에 계시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병장 배승희

'인트라넷에서 시작되는 변화'와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알차고 조금 생소하지만 재미있네요. 수고하셨구요. 저는 학교에서 매달 이 책을 접하는데, 이젠 조금씩 기다려지네요. *^^*

경남 진주시 이미정

'공군'지를 보고 있으면 현역으로 되돌아간 환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유일한 벗입니다. 지난날의 현역 시절의 생각이, 옛 전우들과의 추억이 새롭습니다. 항상 좋은 기사를 실어주시는 실무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 좋은 충실한 내용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예천군 최윤창

실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여행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풍경의 발견'에 나와있는 곳에 가봐야 겠네요. 안내도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길찾기도 한결 수월하겠네요.

경남 남해시 익명의 독자

「이 달의 만난 사람」 코너의 헌혈에 관한 글을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헌혈도 무서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경남 진주시 강병진

<편집후기>

〈새여름〉, 〈새가을〉, 〈새겨울〉은 없는데, 〈새봄〉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봄이 가장 기다려지고 새로움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뜻이 아닐까요?

〈새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지나가는 듯하여 아쉽지만 말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 장인의 심정처럼 책을 마무리하는 이맘때가 되면 허탈함과 뿌듯함, 그리고 아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독자엽서〉에 묻어 나오는 공군가족들의 기대와 성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텐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 지난 호보다 좀더 나은 공군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항공관련 전자도서관 탄생

항공관련 데이터 베이스인 항공정보, 항공통계와 항공 법령 및 각종 국제규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도서관이 탄생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항공진흥협회는 항공관련 데이터 베이스인 항공정보시스템(www.airtransport.or.kr)을 구축, 지난 3월 10일부터 가동하였다.

이 시스템은 항공법령, 항공통계, 전자도서관, 항공자료실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항공법, 훈령, 고시, 항공관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외국법령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항공통계의 경우 연도별, 월별 국내·외 최신 통계와 자동 증감률 분석, 선형그래프 출력기능을 제공하고 전자도서관 코너에서는 석·박사 항공관련 학위논문, 연속 간행물, 세미나 보고서, 학술지 등을 망라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미니공항 건설 추진 계획

전국 곳곳에 미니공항 건설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으로부터 경비행장(미니공항) 개발계획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를 전달받고 본격적인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도서지역 등 육상교통 접근이 어렵거나 항공수요가 많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육상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비행장은 항공수요는 있지만 공항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전국 주요지역에 활주로 길이 1㎞ 전후의 공항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운항 항공기는 50인승에서 100인승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육군중위 최병익(崔炳益)

최병익 육군 중위는 1930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1952년 5월 4일 소위로 임관했으며, 그해 9월 제8보병사단 10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장으로 동부전선 705고지 전투에 참가했다.

당시 소양강 상류인 이곳은 피아를 막론하고 주 보급로를 엄호하는 중요한 요충지로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격렬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던 지역이었다. 1952년 9월 21일 밤, 북한군은 마침내 705고지 일대를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해 왔다. 이때 최 소위는 월등히 많은 적의 병력과 화력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고 침착하게 전투를 지휘하여 수많은 적을 살상했다. 특히 백병전을 선두에서 독려하며 분전했으나 적이 던진 수류탄을 맞아 '고지를 사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국했다.

소대장의 장렬한 죽음을 목격한 소대원들은 분기탱천하여 필사의 투지로 돌파당했던 진지를 탈환하고 적을 완전히 격퇴하는데 성공했으니 3시간 동안 벌어진 이 혈투에서 아군은 319명의 적을 사살하고 아군 요충지를 사수하는 놀라운 전공을 세웠다. 정부는 죽음으로 고지를 사수한 최 소위의 공훈을 기려 중위로 1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너의 꿈을 푸른 하늘에!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가
「어린이 중심의 항공과학 축제」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문의 및 안내 :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go.kr)